

(사)한국예절문화원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자료

2021-10-12



가. 핵심 역량의 개념과 인성의 관계

‘역량’(competency),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등의 개념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학계의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OECD의 ‘역량’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의 역량 개념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 및 그 능력들 간의 ‘내적 구조’(internal structure)를 강조한다. 이것은 역량의 내적 특성들이 분절적이고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술,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 역량의 내적 특성들이 하나의 ‘내적 구조’를 이루면서 역동적으로 연관을 맺고 총체적으로 가동되어 개인의 수행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능력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다른 구성요소를 수반하며 작동한다는 점에서, 역량의 내적 특성들의 내적 구조와 총체적인 특성을 강조한 OECD의 역량 개념은 학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역량에 관한 OECD의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역량은 이미 획득된 능력의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 상황에서 가동되어 과제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역량의 내적 특성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가동시킬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역량은 단순히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잠정적 사실로부터 그 의미를 찾기는 어렵고, 실제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력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수행력’으로서 역량의 특성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역량의 ‘요구-지향적’(demand-oriented)이고 ‘맥락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량의 수행력은 개인적-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당면한 문제의 맥락에 적용되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량은 ‘요구-지향적’ 특성을 지닌다. 역량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과업 수행능력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그 능력을 개인적-사회적 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OECD의 정의에서 역량을 개인의 내적 특성과 맥락과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았듯이, 역량은 개인의 내적 특성이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맥락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역량의 맥락성은 역량의 수행성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맥락과 맞물려 사용되는 능력’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핵심 인성역량은 지식, 기능만이 아니라 가치, 태도, 감정, 동기 등 인간의 내적 특성들이 총체적으로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 즉,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성과가 쉽게 보이는 지식과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인간의 다양한 능력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작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 또한 핵심 인성역량은 앎 혹은 지식의 소유를 넘어 그것을 도덕적 실천으로 연계하는 수행력으로서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 핵심인성역량은 개인적-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행복한 삶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 잘 기능하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인성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핵심 인성역량은 주어진 문제 상황의 특성, 가치 관계 영역의 특성, 미래 사회의 분야별 특성 등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맥락적인 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 인성역량 선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역량은 지식기반 사회, 다문화·세계화, 과학기술발달 및 환경문제 등과 같은 미래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윤리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의 각 분야별로 예견되는 변화와 문제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나.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인성역량

인성 개념을 개인적 차원과 관계 차원(타인 .공동체 .자연과의 관계 영역)에서의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개념으로 이해하고, 인성교육은 이러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로 규정했다. 이러한 개념 규정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인성의 두 차원-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별로 핵심 인성역량을 선정하고자 한다.(〈표 5-7〉)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핵심 인성역량’은 윤리적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과 실천, 바람직한 자아상,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등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합당하게 해결하는 능력, 삶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 난관에 직면했을 때 끈기있게 되튀어 오르는 능력,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도덕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도덕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 자신이 행한 경험적 사실을 도덕적 관점에서 반추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사색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둘째, ‘대인 관계 영역에서의 핵심 인성역량’은 갈등의 조정과 문제 해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의 도덕적 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경청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존중, 배려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다른 사람과 도덕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셋째, ‘공동체와의 관계(시민윤리) 영역에서의 핵심 인성역량’은 세계화·다문화·다원화·민주화된 사회적 조건 속에서 공동선을 실현하고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자질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실현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능력, 세계화·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넷째, ‘자연과의 관계 영역에서의 핵심 인성역량’은 바람직한 환경의식을 토대로 생태적으로 건전한 삶을 추구하고 인간 이외의 존재와 도덕적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자연과 교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태의식과 환경에 대한 규범적인 노력을 토대로 인간과 자연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표 5-7>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인성역량

차원		핵심인성역량	의미
개인적 차원		윤리적 문제해결능력	어떤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합당하게 해결하는 능력(윤리적 의사결정능력, 도덕적 추론 능력 포함)
		긍정적 태도	삶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난관에 직면했을 때 곳곳하게 되튀어 오르는 능력(회복탄력성 포함)
		자기관리능력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도덕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
		자기성찰능력	자신이 행한 경험적 사실을 도덕적 관점에서 반추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사색하는 능력
관계차원	대인 관계 영역	의사소통능력	다른 사람의 입장을 경청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다른 사람을 존중·배려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다른 사람과 도덕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는 능력
	공동체와의 관계 (시민윤리) 영역 자연과의 관계 영역	시민적 참여능력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실현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능력
		다문화시민성	세계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며,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능력
		자연친화능력	자연과 교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태의식과 환경에 대한 규범적인 노력을 토대로 인간과 자연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

이와 같이 핵심 인성역량이 설정된 배경에는 세계화·다문화·다원화·민주화의 진전과 과학기술의 발달, 환경 문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사회’의 실현을 위해 ‘시민 윤리적 역량’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과학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핵심 인성 역량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핵심 인성역량들이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가질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핵심 인성역량을 선정하고 그것을 인성교육에 적용하고자 했다.